



■ 제주도·제주개발공사 ‘탐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

해변공연장 철거 구상 논란에 예산 확보 문제까지

국토부 공모 신청 앞뒤 공청회

“미사여구 도시재생 뭉가 변했다

30여 년 해변공연장 보수 활용을

2500억 사업인데 국비는 250억

규모 축소 지역 자산 활용해야”

지난 11일 저녁 제주시 탐동 해변 공연장. 2026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에 처음 기획한 ‘아시아 관악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며 대만 평치야대학교 심포닉밴드가 금빛 선율을 뿜어냈다. 그 사이 방사탑 형상의 해변공연장 지붕엔 LED 영상으로 꽃잎이 흩날렸다.

관악제의 주요 무대로 세계 정상급 연주자 등 국내외 음악인들이 거쳐간 해변공연장. 1995년 개관 이래 무대와 객석을 개선하는 등 변화를 꾀하며 제주를 대표하는 야외 공연 시설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해변공연장을 허물자는 구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 ‘제주시 탐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이다.

계획안의 대상지는 해변공연장과 공영 주차장이 들어선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 일원(대지 면적 1만3578㎡).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부지(도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안이 중심을 이룬다. 해변공연장을 부순 뒤 그 주변에 ‘제주혁신 캠퍼스’ ‘제주혁신 스퀘어’를 건립하자는 것으로 기존 해변공연장의 방사탑 형태를 모티브로 야외 공연장을 신축하는 안도 넣었다.

이에 대해 공연계 일각은 반발하



지난 11일 저녁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열린 제주국제관악제 ‘아시아 관악페스티벌’에서 대만 평치야대학교 심포닉밴드가 연주를 펼치고 있다.



해변공연장 남측에 있는 공연장 모형과 안내판.



12일 ‘탐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 공청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장을 지낸 이상철 제주국제관악제 이사는 최근 본보에 기고한 ‘제주 해변공연장은 명품 야외 공연장이다’ (8월 6일자 14면) 제하의 글에서 “재건축으로 인해 역사적 정체성과 단일 건축물로서의 예술적 기능성 훼손을 우려”한다며 “여기에 30여 년 전 야외 공연장 신축 예산 24억원의 현재 가치와 당시 이를 추진했던 인물들의 노력과 함께 제주의 문화 예술 거점으로서 해변공연장의 공로와 확장성도 헤아려보자”고 제언했다. 도내 공연장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야외 공연장이 지금의 해변공연장 기능을 할 수 있겠나”라며 “그동안 문화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12일 오후 제주웹센터에서 국토교통부의 최종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 신청을 앞둔 절차 중 하나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제주신항과 원도심 상생 방안으로 탐동

지구 계획안을 설명했고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자들도 대체로 취지에 공감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반면 청중석의 분위기는 달랐다.

탐동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고 밝힌 한 주민은 “2015년 제주 최초로 도시재생 지구로 지정됐으며 요란했다. 그러나 무엇이 재생되었을까 생각하면 퀘스천마크만 보인다. 도시재생, 도시혁신 같은 미사여구를 늘어놓지만 지금도 무근성은 가장 후진 지역으로 남아 있다”며 회의감을 드러냈다.

해변공연장 개관 당시 기념 초대전에 참여했다는 한 작가는 “얼마나 크게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혁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해변공연장을 지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진단 후 일부 보수해 쓸 수 있는 안도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비가 총 2500억원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국비 1300억원 정도는 마련하고 이런 자리를 가져야 하지 않나. 국비로

최대 250억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2~3년 사이에 건물 올라갈 때 이자 비용도 안 될 것이다. 과거 아름다운 원형의 먹물이 있는 탐동을 매립하면서 사람들이 떠났는데 이제 또 다시 이런 계획안이 나오는 게 씁쓸하다”고 했다.

양건 건축가는 “역사성, 장소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떻게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수 있는지의 의문”이라고 꼬집은 뒤 “250억을 갖고 2500억짜리 공사를 할 수 없다. 규모를 줄이고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주현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공청회 말미에 “이번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공모 이후에도 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최대한 계획안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창작 음악으로 빛은 제주바다 이야기

이주성 세 번째 작곡 발표회
‘제주바다의 꽃’ 등 4곡 초연
“지속 연주할 레퍼토리 구축”

풍요의 바다. 위로의 바다. 고난의 바다... 오랜 세월 이 섬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제주의 정체성을 빚어 온 바다가 창작 음악과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건넨다. 제주 이주성 작곡가(사진)의 작곡 발표회에서다.

이주성 작곡가는 2024년 ‘더 제주’, 2025년 ‘제주 산들바람 소품샵-작은 선율에서 깊은 울림까지’란 이름으로 작곡 발표회를 열었고 이제 그 세 번째 무대를 펼친다.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발표회에 달린 제목은 ‘제주 산들바람 소품샵-선율의 바다’. 작은 작품들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 지속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창작 음악 레퍼토리를 구축하겠다는 취지 아래 제주 바다를 주요 소재로 곡을 썼다.

이날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선율의 바다’를 시작으로 피아노 3중주를 위한 ‘서정 소곡-제주바다’, 피아노 독주를 위한 ‘제주바다의 꽃’,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바람발의 노래’가 이어진다. 마지막에는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바다의 선율’을 들려준다. 지난해 선보인 ‘서정 소곡-제주바다’를 빼곤 모두 초연곡이다.

제주의 젊은 음악인에게 곡을 위촉해 발표하는 순서도 있다. 제주대 음악학부에 재학 중인 박주형의 창작곡으로 플루트,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할망바다’를 초연한다.

연주는 트리오 디오(바이올린 김시온, 첼로 박소현, 피아노 송희라), 김현아·박수홍(피아노), 송예슬(해금), 양원준(플루트), 고승완(클라리넷)이 맡는다. 관람료 무료.

이 작곡가는 제주대 음악학부에서 작곡을 공부했고 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제주소나이합창단 작·편곡가, 블루밍노츠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쏘다

▷제주문화관 제주 청년 작가 그림책 특별전 연계 아티스트 토크=문정인·정지원 작가가 참여해 작품의 탄생 배경과 창작 과정을 직접 이야기하고 그림책 평론가의 시선을 더해 독자들이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달 22·23일 오후 3시 제주문화관 북카페. 참가 신청은 문화관 누리집 참고.

▷우당도서관 2026 제주독서대전 ‘청소년·청년 체험 부스’ 참가팀 모집=오는 10월 ‘2026 제주독서대전’에서 청소년과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 부스를 함께 만들어 갈 참여팀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제주도 공공도서관 누리집 참고.

▷조천읍도서관 지혜학교·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제주어에 담긴 제주문화와 지혜’는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화요일마다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성인 20명. ‘길 위의 인문학-제주 인문가치를 읽고, 제주를 걷다’는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운영한다. 성인 30명 모집. 공공도서관 누리집 참고.

▷탐라도서관 ‘문학 더하기 문해력 교실’=국립국어원과 제주대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의 하나로 문학 작품을 활용한 읽기·토론·글쓰기 활동이 이뤄진다. 이달 29일 오후 2시 도서관 강의실.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 15명 모집. 신청은 공공도서관 누리집.

탐라문화제 주제 공연 제작

창작 가무극 배역 9명 공모

오는 10월 제65회 탐라문화제에서 제주 신화 소재 창작 가무극이 펼쳐

진다.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제주예총)는 20분 분량의 주제 공연 ‘바람의 딸, 섬이 되다’를 기획해 출연진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12일 제주예총에 따르면 이번 가무극은 최경국 명지대 명예교수가

극본을 썼고 이정수 탐라문화제 총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탐라문화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탐라야간극장’과 연계해 축제 기간 주무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모집 배역은 총 9명. 이들 배역은

연령과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20일 오후 6시까지. 오디션은 이달 22일 오전 10시 아르크공연연습센터 소연습실. 신청서 양식 등 제주예총 누리집 참고.

전선희기자

[광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50411-중-187436호

✓
✓
✓
✓
**건강검진
여기서!**

KH MEDIV
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제주)

• 종합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
• 맞춤형건강검진
• 직장인건강검진

예약 문의 064)740-0200